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알렉산드르 던킨 지음
김현택 · 이상준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집필 책임위원회

A. 아르바토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V. 바라노프스키(과학아카데미 준회원) E. 곤트마헤르(경제학 국가박사), A. 딘킨(과학아카데미 정회원), N. 이바노바(과학아카데미 준회원), I. 코롤레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G. 마차바리아니(과학아카데미 준회원), V. 미헤에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V. 트루브니코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E. 헤신(경제학 국가박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I. 코롤레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V. 미헤에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위 원: V. 아미로프, F. 보이톨코프스키(정치학 박사), E. 클류에바, N. 코솔라노프(역사학 박사), A. 쿠즈네초프(경제학 국가박사), S. 루코닌(경제학 박사), G. 마차바리아니(과학아카데미 준회원), E. 헤신(경제학 국가박사), V. 슈비드코(경제학 박사), A. 유시포프(경제학 박사)

여러 학문이 연계되는 연구의 총체인 본 전망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세계 문제, 개별 지역, 국가 등을 오래 기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글로벌 전망 비전을 기반으로 하였다. 본 집필 작업에 이용된 주요 통계 자료는 GDP 전망 평가, 노동생 산성, R&D 비용, 그리고 IMEMO의 독창적 방법론을 통해 얻은 기타 지표 등이다. 이 연구의 주요 과제는 핵심적 세계정치·경제 동향이 러시아에게 어떤 문제와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은 요약본과 전문 텍스트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전문 텍스트는 세계 발전 동향, 그리고 이 동향이 이데올로기, 경제, 사회관계, 정치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 장은 세계 발전의 중심지와 기타 지역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세계 발전 전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 러시아에게 어떤 도전과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를 밝히고 있는 이 책은, 공직자, 재계인사,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집필되었다.

*표지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력(1936년 作)>의 일부를 사용한 것임

© IMEMO RAS, 2011

© Magistr 출판사, 2011

한국어판 판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에 있음



한국어판 서문

장기 예측을 하자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그 결과 구체적인 평가와 정책 제안이 가능해진다. 러시아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트렌드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법이 합리적인 것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속 학자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독창적 예측 방법에 의거하여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기 트렌드의 질적 특징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포괄적 장기 예측은 UN과 기타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EU, 중국 등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널리 알려진 이런 범주의 연구로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대서양 위원회(Atlantic Council) 등이 내놓은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의 글로벌 트렌드 전망을 들 수 있다.

20년 가까운 과도기(1992~2010년)를 겪은 오늘의 러시아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내놓는 미래 예측을 그대로 참고의 틀로 사용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정치 및 전문가 엘리트들이 그 사이 경험한 성숙한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08~2009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 두 번째 요인은 글로벌 차원의 행위자들에게 경제, 재정, 안보,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 탐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러시아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영역에서 세계적 상황변화에 적절히 참여하고 적응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의 큰 흐름을 거스

르면서 한 국가의 성공적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은 IMEMO 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장기 전망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었다. 금번 장기 전망이 2001년의 『새 천년의 기로에 선 세계』 그리고 2007년의 『세계경제 전망 2020』과의 비교에서 갖는 차별성은, 경제 전망에 대한 포괄적 비전 제시와 함께 국제사회의 트렌드에 대한 이념적, 사회적, 국제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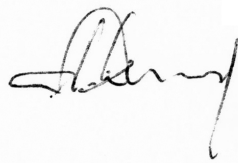
학제 간 연구의 산물인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은 다양한 글로벌 이슈, 지역, 그리고 개별 국가를 꾸준히 연구해온 대규모 전문가 그룹이 마련한 미래 비전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 자료로는, GDP 예측, 노동생산성, R&D 투자, IMEMO 자체의 독창적 방법으로 산출된 지표 등이 활용되었다.

상이한 성격의 변화들(이를테면, 경제, 재정, 인구변화, 사회적 트렌드, 과학 발전과 기술변화, 이데올로기의 역할, 사회 심리적 경향과 문화 과정 등) 사이의 긴밀한 연관 관계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 결과, 우리는 향후 20년 동안 전개될 글로벌 차원의 질적 변화에 대한 조망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세계경제와 글로벌 정치 질서의 지속적, 혹은 변화 가능한 트렌드는 물론 국제체제의 여러 주체, 구조, 제도, 그리고 주요행위자들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으뜸가는 과제는, 우리가 발견한 글로벌 경제 및 정치의 주요 트렌드들이 러시아와 세계에 어떤 위기와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는지 밝히는 일이다.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의 한국어 번역판이 출간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을 통해 러시아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본 세계의 미래, 한국의 미래 전망이 한국 국민과 학계 인사들 사이에 널리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책의 발간이 러시아와 한국 양국 사이의 협력 관계에도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알렉산드르 딘킨
IMEMO 소장

목 차

한국어판 서문	3
서 론	17
제1부 이데올로기와 글로벌 거버넌스	39
제1장 이데올로기적 과정	41
1.1. 이데올로기적 근거	44
1.2. 세계의 주요 이데올로기	47
1.3. 지배 이데올로기 간의 관계	49
1.4.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과정	52
1.5. 종교의 균형	53
1.6. 기존 이데올로기 체계의 진화	55
1.7.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형성	61
1.8. 대안적 세계화 모델의 이데올로기	67
1.9. 이데올로기와 국제관계	71
1.10. 국제체계에서의 문화 간 상호작용	71
1.11. 글로벌 거버넌스 이데올로기	77

제2장 글로벌 거버넌스	79
2.1.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과 조건	79
2.2.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주체	81
2.3.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상과 분야	84
2.4.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 및 기구	90
2.5. 글로벌 거버넌스의 내용: 목적과 과제	96
2.6.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태와 방법의 진화	100
2.7.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 전망	102

제2부 세계경제 109

제3장 세계경제의 역학구조	111
3.1. 글로벌 위기의 여파	111
3.2. GDP 성장 전망	113
3.3. GDP 구조	115
3.4. 자본축적	118
3.5. 인구변동과 노동자원	120
3.6. 노동생산성	123

제4장 장기적 발전 요소	126
4.1. 세계화	126
세계무역	126
다국적 기업	130
외국인 직접투자 (FDI)	130
세계 엘리트 기업의 지형도 변화	130
야태지역의 통합 확대	131
FDI의 산업 분야별 구조	132
직접투자의 개념 변화	133
경영의 진화	134
금융시장의 발전	135

FDI 외 수단외 발전	136
금융 시스템의 성숙도 제고	136
4.2. 혁신	137
GDP의 기술집약도	138
기술적 우선 과제	140
기술집약적 사업	143
R&D를 비롯한 기업 혁신기능의 국제화	143
제5장 주요 산업 부문 및 분야	147
5.1. 서비스 부문	147
주요 동향	147
지적 서비스	154
정보통신기술	155
5.2. 공업	156
분야	156
일반 동향	158
상품 시장의 발전 동향	160
글로벌 경쟁과 효율성	160
5.3. 에너지	163
전반적 동향	163
석탄	164
석유	165
천연가스	166
원자력에너지	166
재생에너지	167
5.4. 농업	167
제6장 전략조정 방향	170
6.1. 국제무역	170
6.2. 세계금융	173
6.3. 환경	176

개발의 생태화	176
기후변화	179
기후 보존을 위한 개별국의 방안	180

제3부 글로벌 사회문제 183

제7장 전반적 사회발전 동향 185

7.1. 정치 시스템 및 권력기관, 시민사회	185
국내정세전망	189
정보기술과 정치적 진화	191
7.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선사업에서 기업시민으로	192
7.3. 근로관계 및 조율 시스템	199

제8장 세계 인구동향 207

8.1. 전체인구동향	207
8.2. 선진국 인구전망	211
8.3. 이주문제	213

제9장 교육 및 보건, 빈곤문제 217

9.1. 세계 교육제도	217
전체동향	217
교육 내용 및 방법론 개선	219
평생교육 확대	220
글로벌 교육 공간의 형성 및 국가간 교육제도의 표준화	220
노동력 이동성 증대	221
9.2. 세계 보건제도	222
9.3. 세계 빈곤문제	225

제4부 국제관계 시스템 및 안보문제 229

제10장 국제정치 발전 동향 231

10.1. 국제정치 시스템의 질적 변화	231
-----------------------------	-----

전환기의 종료	231
세계화의 효과	234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	236
국제관계 시스템의 잠재적 분열요소	239
10.2. 국제정치 시스템의 구성	241
새로운 시스템 구축	241
다극체제	243
통합, 지역화, 국제레짐	245
국제 리더십	248
10.3. 국제정치 행동의 결정 요인	252
경제	252
안보와 힘의 요소	253
군비통제	255
내정 상황 및 대외관계	257
협력의 중요성	258
제11장 분쟁과 극단적 시나리오	260
11.1. 국제분쟁의 전개 과정	260
핵보유강국	261
기타 핵보유국	261
인도 - 파키스탄	261
인도 - 중국	263
11.2. 국제분쟁	265
이란	265
중앙아시아	267
기타 지역	269
11.3. 복합유형의 분쟁	270
제12장 안보위협	272
12.1. 군사력 역할	272
핵무기	273

미사일방어체제 (MD)	274
정밀 무기	274
항공우주분야 정보 및 군사장비	275
무기거래	276
12.2. 위험기술 및 원료 확산	276
핵확산	276
북한	277
이란	278
핵 테러	278
미사일 기술	279
기타 대량살상무기 (WMD) 및 군사기술	280
화학무기	280
생물무기	281
방사능 무기	282
12.3. 국제테러	283
12.4. 새로운 안보위협	285
기후	285
자원전쟁	287

제5부 세계발전의 중심 및 기타 지역

제13장 미국	291
13.1. 발전속도 및 특징	291
13.2. 경제구조의 변화	293
13.3. 인구증가와 인간 잠재능력 향상	296
교육의 역할	298
보건	299
13.4. 순환적·파생 문제	300
13.5. 사회·경제제도의 기능 변화	302
기업부문	304

영리 및 비영리 경제 분야의 결합	307
13.6. 세계경제관계	308
13.7. 국내 정치발전의 주요경향	310
13.8. 대외관계의 주요방향	315
대외관계에서의 다국적기업, 영리 및 비영리 단체	319
미국과 NATO	322
제14장 EU	324
14.1. 사회·경제 발전	326
14.2. EU 국가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331
14.3. 제도적 구조의 진화	335
14.4. 주요 외교정책의 벡터	338
14.5. EU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발전 특성	341
독일	341
영국	345
프랑스	349
이탈리아	354
스페인	358
북유럽	362
중동부유럽	366
제1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370
15.1. 중국	378
경제 현대화	378
국내정치 안정	381
대외관계 노선	384
15.2. 일본	384
경제동향	384
혁신시스템 재편	388
대외경제 부문	390

15.3. 한반도: 변화와 통일의 시나리오	394
통일의 단계	394
경제성장 둔화: 통일 부담	395
중국·일본과의 3각체제 구축	396
제16장 동남아시아와 호주	399
16.1. ASEAN	399
ASEAN과 국제노동분업	399
인구	400
지역통합	401
주요 국내정치 경향	401
ASEAN에 대한 위협	402
ASEAN과 러시아	404
16.2. 호주	405
세계경제의 원료기지	40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405
인구와 이민	406
경제 전략	407
에너지	407
대외경제 부문	407
지역통합 참여	408
정치발전	408
제17장 인도와 남아시아	410
17.1. 인도	410
경제동력	410
인구변화	411
현대화와 사회의 질적 발전 문제	412
정당정치 구조의 진화	413
사회정치 경향과 위협요소	413
17.2. 파키스탄	414
주요 사회경제적 지향점	414

파키스탄의 당면 과제	414
17.3. 남아시아 기타 국가들	415
제18장 중동과 아프리카	416
18.1. 중동	416
경제동력	416
인구와 이민 동향	416
정치전망	417
이슬람 요소	418
지역통합	419
미래의 도전과 위협요소	420
18.2. 북아프리카	421
경제동력	421
인구와 이민 동향	421
지역통합	422
미래의 도전과 위협요소	422
18.3.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423
경제동력	423
인구와 이민 동향	425
사회정치 전망	426
빈곤문제	427
대외경제관계와 대외요소	428
지역통합	429
미래의 도전과 위협요소	430
제19장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431
19.1. 지역 동향	431
경제동력	431
인구와 노동	433
구조적 변화	434
혁신	435
정치체제	435

역내지역 간 분쟁 가능성	436
대외관계, 대외정책의 지향점	436
대외경제 분야	436
19.2. 브라질	438
경제 동향	438
사회 및 국내정치 상황	439
대외경제관계	439
세계 강국의 위상	440
19.3. 멕시코	441
경제 동향	441
사회 및 국내정치 상황	441
국내경제 분야	442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444
결 론	445
러시아에게 주는 시사점: 위기와 기회	447
통계지표	456
통계지표 해제	456
집필진 및 한국어판 번역진	476
역자후기	481

서론





서론

무엇인가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또 때로는 난망한 과제이다. 글로벌 차원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작업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사회와 국제관계를 다루는 학문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중요한 실천적 과제 중 하나이다. 전망을 통해 미래의 메가트렌드를 읽을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간적 지평 속에서 전략을 구상하고 또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전망의 진정한 목표는 장차 발생할 일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데 있지 않다.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세히 기술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는 수많은 우연한, 주관적 요인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전망의 최우선적 과제는 가장 중요한 장기적 트렌드를 예견하는 일, 그리고 세계적 변화의 핵심적 결정요인들과 잠재적 전환의 기점들을 파악해내는 일 두 가지이다. 이 중에서도 후자는 아주 까다로운 과제이다.

다양한 신뢰 수준을 가진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사회 활동가들은 분기별 통계나 직관력 또는 본능적 감각에 더 이상 의존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 기업, 비정부단체, 사회단체의 중장기 정책들이 보다 성공적, 효율적일지는 전적으로 미래의 정책 결정자가 얼마나 정교하고 또 다각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실현 가능한

비전과 실현 하고자 하는 비전이 과도하게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미래의 세계 구도는, 냉정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상이한 발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나 선입견과 늘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래의 장기 전망을 왜곡하여 내릴 경우,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혹독해진다. 이 점에 있어서, 20세기에 있었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예측과 체제의 대격변에 관한 여러 예측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다.

2008~2009년 금융위기는, 세계화 시대에 불확실성이 증대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옳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금융위기는 미래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적 틀을 모색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전문용어로 이 개념적 틀은 신 경제규범(new norm)이라고 불린다. 신 경제규범의 특징은 세계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보상, 금융시장 통제, 글로벌 거버넌스, 소비 제한, 불평등의 심화, 녹색 성장, 높은 실업률 등의 요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

신 경제규범이라는 개념은 20세기에 작동했던 케인즈주의와 자유주의(이 두 사조의 효과 유무와는 상관없이)라는 개념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케인즈주의와 자유주의는 세계화 시대 이전까지 국가경제를 지배하던 이론적 사조이다. 현대 세계에서 경제 민족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불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가 신용확대 또는 통화긴축정책을 취하는 등 금융문제에 대해 일국 차원의 처방을 제 아무리 내놓는다고 해도 국경을 초월하는 정보, 혁신, 자본,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해 정책 효과는 사라진다. 오늘날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예전보다 책임감과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사회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내포하고 있으며, 단지 산업정책을 수립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균형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의 모순 중 하나는 중국이 자유주의적 대외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며, 미국은 신용확대 및 적자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그 어떤 국가도, 심지어 가장 폐쇄적인 국가조차도 지역적, 전

세계적 발전 맥락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진단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정치경제에서 한 국가의 대내외 경계 구분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가가 전 세계적 정치, 경제, 사회, 이념의 발전 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들 간 상호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연구 분석의 이론적 여건 뿐 아니라 세계질서 편성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국가 엘리트층의 실질적 사고도 역동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1960~1970년대 전 세계 연구기관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인류 전체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후 여러 유형의 세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강한 어조의 혹은 모순적 내용의 보고서가 다수 발표되었다. 그 무렵 가장 명성을 얻은 것이 『로마클럽(The Club of Rome) 보고서』이다. 사회과학의 체계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미래 연구인 이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추정기법을 토대로 현실적인, 그리고 가설적인 세계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언급된 문제들로는, 에너지 부족, 식량 및 기타 자원 부족, 인구 증가, 남반구 국가들의 인구폭발 우려, 전 세계적 빈곤, 군비경쟁, 다양한 국가와 지역 간 사회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의 불평등 양상, 그리고 우주 및 전 세계 대양의 평화적 개발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 주제는 아직도 장기 전망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로마 클럽 보고서』는 커다란 심리적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념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두 체제와 제3세계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경제가 세계화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 편입되는 경향이 커다란 추세를 예견했다.

이 무렵 세계경제, 과학기술, 국제정치에 관한 전망 연구의 붐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브란트위원회(Brandt Commission), 세계질서모델프로젝트(WOMP), 미국 RAND 연구소의 보고서들이었다. 세계사회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장기적 전망(과학기술의 진보에 관한 총체적 프로그램)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시도들이 소비에



제1부

이데올로기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데올로기적 과정

이데올로기는 (그 발전 정도와 표현 방식과 상관없이)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가의 이익을 설정하고, 그러한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방법에 관한 인식과 전략적 목적을 형성하는 도덕·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다. 본 전망에서는 종교를 과거에 형성된 이데올로기 형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와 삶 전반에 걸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종교를 본 장에 포함시켰다.

그림 1.1. 현상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그동안 국제관계, 세계발전, 역사 등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일정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진화되어 왔다.

- 개별 신앙과 정치 이데올로기
- 개별 신앙 및 정치 이데올로기 간의 다양한 조합과 상호작용
- (종교 대립 등의) 이데올로기 대립

본 전망의 작성자들은, 2030년까지는 적어도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과정이 유지되거나, 아마도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명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과정이 반드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2030년까지 이데올로기적 과정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근거로 다음의 요인을 들 수 있겠다.

세계화로 인해 인류는 사상 초유의 수많은 문제와 의혹에 직면해 있다. 이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와 같은 문제와 의혹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모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정치적 선택은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이데올로기적 판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데올로기보다 더 믿을만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패배 이후 현재 정치 무대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전망은 2030년까지 해결해야 할 두 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직까지 자유주의의 기반이 약하거나 부재한 국가나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가치와 목적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자유주의적 기반을 정치, 경제, 국제관계 및 기타 부문에 반영된 현대 사회의 경향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과 유일무이한 과학적 세계관이 퇴출을 당하게 되자 성직 권주의가 자연스레 그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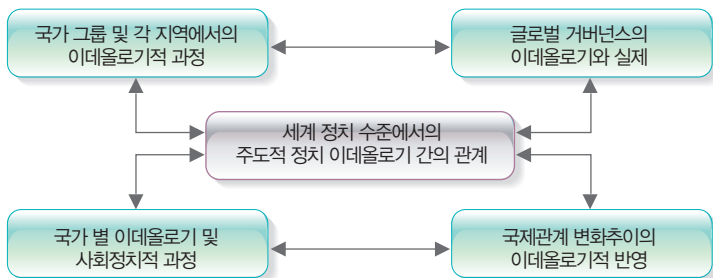
자체의 진화, 서구(특히 미국)와 이슬람 세계 간의 관계, 글로벌 엘리트 사이의 대립 등으로 인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역사적 분쟁이 재현되고 있다.

특정 신앙이나 종교·문화적 총체를 신봉하는 현상은 새로운 (역사·신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과거의 정체성, 또는 그들이 과거와 같은 성격 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엘리트 집단과 대중 집단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상과 연결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거나 그러한 종교 신앙에 무관심한 사회 집단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사회의 중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수준과 삶의 질, 천연자원의 가격, 천연자원 접근 이용권, 북극과 세계대양의 분리, 오염물질 배출량 등 폭넓은 분야에 적용된다.

제1차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가발전(향후에는 그에 따른 세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국의 정책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과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림 1.2. 세계정치의 다양한 조직적 수준에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치적 과정의 상호관계



1.1. 이데올로기적 근거

본 전망은, 향후 20년 이내에(2030년까지)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인류 간, 다양한 사회공동체 간, 각 기업 간, 각 국가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명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전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로벌 경향과 현상에 대하여 이데올로기화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글로벌 경향과 현상의 변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장기적 전망은 가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전망 역시 이데올로기적 요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 목표설정은 정강이나 정책 성명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본 전망은 어떤 준비된 발전 처방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며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정치경제 발전의 자각모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세계정치경제 발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전망을 밝혀내고 분석해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안보와 발전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 수준에서 비전과 솔루션이 제시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경쟁자의 전략력 능력을 파괴하기 보다는 경쟁자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

2030년 무렵이 되면 세계화, 타협적 사고, 통합적 동기부여의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세계 발전이 단일 세계를 구축하고 법에 기반을 둔 타협적 사고를 확산시키며 안보와 발전 문제를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타협적 사고는, 경제 부문에서는 시장관계(market relations)를 통해, 국내정책 부문에서는 민주주의를 통해, 국제관계 부문에서는 국제법

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을 통해 실현된다.

□ **사회 지향적 시장 민주주의와 공동발전을 통한 안보의 신 글로벌 구조는 세계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방향을 결정한다.**

이 시나리오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국익을 보장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가장 간단하며 무고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일반대중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인 고립주의와 공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세계화 및 타협의 이데올로기에 맞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와 각 국의 하위 독립 체에서는 “국민을 복종케 하라!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말라!”와 같은 반봉건적 원칙이 계속 작용하게 될 것이다. 양극대립이 탄생시킨 힘의 균형에 기반을 둔 타협적 사고는 단기간 안에 법에 기반을 둔 타협적 사고로 발전될 수 없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더욱더 불가능하다. 군사, 경제, 기술 및 기타 부문의 국가 전략력이 형성하는 새로운 상호관계로 인해 신공격적(neo-aggressive) 사고가 발전한다.

신공격적 사고의 반대 개념은 신타협적 사고다. 신타협적 사고는 법적 권력이라기보다는 힘의 균형에 이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현상을 반영함은 물론,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세계가 모든 능력을 규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안보와 발전 문제의 세계화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신공격적 사고는 지배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지배욕구와 함께, 신타협적 사고에서 비롯한 통합적 동기부여에 대한 대안적 욕구도 존재한다. 그와 함께 세계에는 공격적 사고, 힘의 균형에 기반을 둔 타협적 사고, 법에 기반을 둔 타협적 사고 등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 세 가지 사고의 확산 범위는 때에 따라 좁아지거나 확장되면서 파장의 형태를 띠며 변화된다.

4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멕시코 엘리트 사이에는 자국 경제가(정치 역시) 과도하게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입지를 상실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이 때문에, EU,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관계를 확대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멕시코의 라틴아메리카로의 부분적인 회귀는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미정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계획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국경선에서 벌어지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다.

멕시코는 세계무대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라질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적다.

결론



러시아에게 주는 시사점: 위기와 기회

- 러시아는 자국의 국내외 전략을, 다가오는 20년의 국제적 발전 트렌드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 이는 러시아가 주변부의 입장에 남아있지 않고,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세계화가 던져줄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데올로기

위기	기회
러시아 내에 확산된 민족주의, 배타성, 대립적 자아일체 의식	유럽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국가로서, 전 세계 문명 중 일부로서 유럽적 가치에 기반을 둔 러시아의 자아일체 의식
<평등>과 <공정> 등 급진 좌파 사상의 부흥	이데올로기와 가치에 대해 세계 선도국가들 및 기타 이해 당사국들과 폭넓은 다층적 대화를 유지
종교를 최우선 시 하는 공동체 의식, 종교 간 충돌	미국, EU, 중국, 인도와 공동으로 공격적 이슬람주의에 대응

□ 핵심 과제

세계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치, 사회, 법, 교육 제도를 필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집필진 및 한국어판 번역진

제1부 이데올로기와 글로벌 거버넌스

편집

F. 보이틀로브스키(정치학 박사), N. 코솔라포프(역사학 박사)

집필

F. 보이틀로브스키(정치학 박사), N. 자글라딘(역사학 국가박사), N. 코솔라포프(역사학 박사), V. 미헤에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A. 랴보프(정치학 박사)

제2부 세계경제

편집

N. 이바노바(과학아카데미 준회원), S. 아폰체프(경제학 국가박사)

집필

S. 아폰체프(경제학 국가박사), I. 다닐린(정치학 박사), L. 데미도바(경제학 박사), A. 딘킨(과학아카데미 정회원), S. 주코프(경제학 국가박사), V. 자가슈빌리(경제학 국가박사), N. 이바노바(과학아카데미 준회원), V. 콘드라티에프(경제학 국가박사), A. 쿠즈네초프(경제학 국가박사), G. 마차바리아니, Y. 미르킨(경제학 국가박사), E. 니키티나(경제학 박사), D. 릴리코(경제학 박사), E. 헤신(경제학 국가박사)

참고자료 집필

Y. 아드노(이학 박사), N. 안드레예바(경제학 박사), O. 보가체바(경제학 박사), Y. 자크레프스카야, E. 코발레프(경제학 국가박사), I. 코피틴, O. 쿠디노바(경제학 박사), Y. 쿠렌코프(경제학 국가박사), A. 마슬렌니코프, V. 포포프, P. 세르게예프(경제학 국가

박사), V. 술체바

제3부 글로벌 사회문제

편집

E. 곤트마헤르(경제학 국가박사), N. 자글라딘(역사학 국가박사)

집필

G. 바인슈테인(역사학 국가박사), E. 곤트마헤르(경제학 국가박사), N. 고프페(경제학 박사), N. 자글라딘(역사학 국가박사), N. 아바노프(경제학 국가박사), V. 랍킨(화학 박사), G. 모누소바(역사학 박사), V. 판틴(철학 국가박사), S. 페레구도프(역사학 국가박사), E. 사도바이(경제학 박사), V. 사우트키나(역사학 박사), I. 세멘네프(정치학 국가박사), K. 홀로드코프스키(역사학 국가박사), M. 호홀로바(역사학 박사), I. 차펜코(경제학 국가박사), V. 웨이니스(경제학 국가박사)

제4부 국제관계 시스템 및 안보리스크

편집

A. 아르바토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V. 바라노프스키(과학아카데미 준회원)

집필

A. 아르바토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V. 바라노프스키(과학아카데미 준회원), V. 블라디미로프, V. 드보르킨(이학 국가박사), N. 칼리니나(의학 국가박사), A. 칼라딘(역사학 국가박사), N. 코슬라포프(역사학 박사), B. 마케예프(정치학 국가박사), S. 오즈노비셰프(역사학 박사), A. 피카예프(역사학 박사), V. 소트니코프(역사학 박사), E. 스테파노비(정치학 국가박사), P. 토피츠카노프(정치학 박사), T. 파르나소바

참고자료 집필

V. V. 라즈메로프(역사학 박사)

제5부 세계발전의 중심 및 기타 지역

미국

편집

F. 보이톨로프스키(정치학 박사), E. 키리첸코(경제학 박사)

집필

L. 보가예프스키, F. 보이톨로프스키(정치학 박사), V. 주라블레바(정치학 박사), L. 자파딘스카야, E. 키리첸코(경제학 박사), E. 레베데바(경제학 박사), V. 마르친케비치(경제학 국가박사), G. 니콜스카야(경제학 박사), M. 페로바(경제학 박사), A. 솔리스테르(역사학 박사)

참고자료 집필

M. 슈쿰딘(역사학 박사)

EU

편집

A. 쿠즈네초프(경제학 국가박사), E. 헤신(경제학 국가박사)

집필

A. 아빌로바(경제학 박사), T. 안드레에바(역사학 박사), N. 아르바토바(정치학 국가박사), A. 볼코프(경제학 박사), K. 보로노프(역사학 박사), K. 주에바(역사학 박사), M. 클리노바(경제학 박사), A. 코케에프(역사학 박사), A. 쿠즈네초프(경제학 국가박사), E. 오스트로프스카야(경제학 박사), G. 포네델코(경제학 박사), I. 프로호렌코(정치학 박사), S. 우트킨(정치학 박사), E. 헤신(경제학 국가박사), E. 체르카소바(경제학 박사), A. 체트베리코바(경제학 박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편집

V. 아미로프, V. 미헤에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집필

V. 아미로프, V. 자이체프(경제학 국가박사), E. 카나에프(역사학 국가박사), E. 레온티에바(경제학 박사), S. 루코닌(경제학 박사), V. 미헤에프(과학아카데미 준회원), M. 포타포프(경제학 국가박사), V. 슴스키(역사학 국가박사), A. 페도로프스키(경제학 국가박사), V. 슈비드코(경제학 박사)

동남아시아와 호주

편집

V. 아미로프

집필

V. 아미로프, E. 카나예프(역사학 국가박사), V. 슴스키(역사학 국가박사)

인도와 남아시아

편집

V. 아미로프, V. 호로스(역사학 국가박사)

집필

E. 브라긴나(경제학 국가박사), A. 볼로딘(역사학 국가박사), S. 루네프(역사학 국가박사), G. 마차바리아니

중동과 아프리카

편집

V. 아미로프, V. 호로스(역사학 국가박사)

집필

M. 볼로디나(역사학 박사), E. 레베데바(역사학 박사), D. 말리쉐바(정치학 국가박사), G. 미르스키(역사학 국가박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편집

V. 아미로프, V. 호로스(역사학 국가박사)

집필

A. 보브로프니코프(경제학 국가박사, 과학아카데미 산하 라틴아메리카연구소), V. 다비도프(경제학 국가박사, 과학아카데미 산하 라틴아메리카연구소), N. 홀로드코프(경제학 국가박사, 과학아카데미 산하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통계지표

G. 마차바리아니, Y. 자크레프스카야

[한국어판 편집 및 번역진]

편집

손현익, 장세호, 제성훈, 최아영

번역

강동희, 김규형, 김윤희, 김인경, 김자영, 김하은, 안혜령, 이유경, 이해경, 정혜린



역사후기

이 책의 서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측은 어렵고 난망한 과제이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시각조차 서로 다른 경우가 허다할 터인데, 미래 예측, 그것도 지금부터 20년 후를 조망하는 작업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선 고개를 가우뚱할 것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차원의 장기 전망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인간 개개인 그리고 개별 국가의 운명이 전 지구적 차원의 변화 트렌드와 시시각각 긴밀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 그리고 가변적 세계 체제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초래할 미래의 삶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우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 탐구에 몰두하던 과학자들도 때로는 미래 예측이라는 지난한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속 백 여 명의 연구 인력이 3년 이상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완성한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은 러시아가 향후 20년의 국가발전 전략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집필되었다. 스탈린 시대에 경제 및 국제관계 분야 싱크탱크로 출범한 IMEMO는 냉전 기간 동안 소련 대외 전략의 기본 틀을 짜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련 최고 지도부에 제공하던 중요한 연구기관이었다. 허나 소련 해체 이후 국제정치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이 위축되면서 이 연구소의 역할 또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0년대에 들어서 러시아 경제가 부활하고 국가 위상이 복원되면서 IMEMO의 연구 활동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연구소의 정기 간행물 『지구 연감(Year of the Planet)』이 러시아 권력층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간 몇 차례에 미래 예측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IMEMO는 향후 20년 동안의 글로벌 트렌드를 거시적, 포괄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보고서를 2011년 단행본 형태로 발간했다. 여기에 한국어로 출간하는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Strategicheskij global'nyj prognoz 2030)』은 이 단행본의 러시아어 텍스트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서론과 결론, 그리고 총 19장의 본론으로 구성된 이 연구보고서는 이데올로기, 사회, 정치, 안보 등의 영역을 포괄하면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미래 추이가 국제사회에 던져줄 위기와 도전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경제의 역학구조도 변화, 글로벌 사회문제, 국제안보체제는 물론, 미국, EU,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도와 남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와 카리브해 등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가운데서 러시아가 대비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IMEMO 연구 보고서의 한국어판 발간의 의의는, 오래 동안 미국 또는 유럽과 차별화된 입장을 견지해온 러시아 학자들의 시각과 연구 방법론, 그리고 도출된 결론들을 한국의 연구자들과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구의 미래 연구와의 비교에서 러시아적 시각이 갖는 변별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글로벌 장기 트렌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한-러 관계의 역동적 전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러시아의 관심과 전략적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는 기존의 냉전적 시각에 획기적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그 동안 러시아 학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지는 않았던 대한

민국 주도의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 이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변화 예측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 맞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중국과 차별화된 의견을 거론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보고가 적시한 2030년까지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러시아 학자들이 체계적 분석 틀과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대한민국 주도 하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세계체제의 변화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이 경직되고 폐쇄된 현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한, 즉 스스로 변화하여 세계체제 흐름에 참여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이나 영향 없이도 자연스럽게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소 늦었지만 개혁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에게는 북한이 자체 붕괴하여 통일이 되든, 평화통일 형식이 되든 통일 한국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책의 한반도 통일시나리오의 김정일 사망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러 수교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양국 사이의 상호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굵직한 협력 사업들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양국 간의 교역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번 출간하는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러시아를 바라보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대한 분량의 이 미래예측 보고서를 우리 글로 번역하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었다. 러시아의 세계를 바라보는 미래 전망을 우리 한국의 전문가 및 일반 독자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소개해야겠다는

사명감에서 번역에 착수했지만, 전문 용어의 통일, 각 장이 갖고 있는 문체적 특징을 우리 글로 풀어내야 하는 과제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공동 번역 진으로 참가한 김인경 석사, 강동희 석사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출신 전문 번역가들의 노력과 감수를 맡은 손현익 박사, 최아영 박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번역서의 출간은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처음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여러 귀찮은 일을 도맡아 수고해준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님과 한국외대 출판부 탁경구 팀장님은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한국어 판 발간의 산파역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과 도움에 힘입어 이번에 한국에서 발간하는 IMEMO의 글로벌 전망이 우리의 지적 안목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본 한국어판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은 IMEMO 연구보고서의 세계 최초 번역이다.

2011년 12월 31일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김현택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초판 인쇄 2012년 1월 10일

초판 발행 2012년 1월 20일

지은이 ALEXANDER A. DYNKIN

옮긴이 김현택, 이상준

펴낸이 박 철

펴낸곳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화 02)2173-2495~7

FAX 02)2173-3363

홈페이지 <http://press.hufs.ac.kr>

전자우편 press@hufs.ac.kr

출판등록 제6-6호(1969. 4. 30)

편집·디자인 디자인퍼브 02)2254-4301

인쇄·제본 (주)SM C&P 02)468-6100

ISBN 978-89-7464-707-0 93300 정가 27,000원

* 잘못된 책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불법복사는 지적재산을 훔치는 범죄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따라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